

과제수행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집단구성원에 대한 결과편파적 추론에 미치는 영향

송관재 · 박수애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피험자들이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기질적 추론에 하는데 있어서 과제수행의 성공과 실패가 결과편파적 추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정한 과제에 기초하여 피험자들을 내외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로 과제를 수행하게 한 다음 집단의 과제수행결과를 조작하였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의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 및 추론을 살펴보았다. 피험자들이 내외집단으로 구분된 경우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 및 평가에서는 과제수행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결과편파적 추론이 달리 나타났다. 피험자들은 내집단이 과제수행에서 성공하였을 때 내집단 구성원들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론하는 결과편파적 추론을 보였다. 내집단이 과제수행에서 실패하였을 때는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 및 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집단소속감에 따른 내집단 편애효과만 나타났다. 피험자들의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 및 추론에서는 과제수행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결과편파적 추론이 나타나지 않았다. 외집단이 과제수행에서 실패하였을 때 외집단 구성원들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추론하는 결과편파적 추론이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결과는 이를 지지해 주지 못하였다. 이는 피험자들이 내외집단으로 구분된 경우 결과편파적 추론은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구성원을 관찰할 때 또는 그들과 상호작용할 때 우리는 그들에 대해 많은 추론을 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숨겨진 심리적 특징이나 의도, 그들의 미래행동, 행동의 원인, 그들의 성격이나 기질에 대한 일반화 등과 같은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 및 그들과의 관계에 대해 추론을 한다. 즉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는가,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들보다 우수한가 열등한가, 혹은 같은가 다른가 등이다. 이러한 추론과정은 인상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다(Heider, 1944).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데 있어서 추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추론의 본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무엇인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Fiske, 1993; Fiske & Taylor, 1991). 사회적 추론과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대응추론적 편파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지각자로 하여금 관찰된 행동의 의미에 대응하는 기질적 추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Jones & Davis, 1965). 그러나 사람들의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찰된 행동뿐만 아니라 수행이나 선택의 결과

또한 추론에 영향을 미친다.

행동결과가 추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 왔던 주제이다. 추론형성에 미치는 결과의 영향은 인지부조화 이론이나 귀인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Brehm(1956)의 인지부조화 현상을 다룬 연구에서, 의사결정후 선택한 대안과 선택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하는 것은 선택의 결과가 개인의 추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Gerard & White, 1983). 귀인 이론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귀인 오류는 상황적 원인보다 행동결과가 더 특출하게 지각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Jones & Harris, 1967). 행동결과의 영향은 자기지각이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Bem(1972)의 자기지각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지식의 중요한 한 원천으로서 자신의 결과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특질과 행동을 귀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oss, Greene, & House, 1977). 이와 같은 연구들은 사람들이 행동적 결과에 특히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론과정에 있어서 행위자의 결과가 외적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자가 행위자에게 결과와 일치하는 기질을 귀인시킬 때 이를 결과편파적(outcome-biased) 추론이라고 한다(Mackie, Worth, & Allison, 1990; Mackie, Allison, Worth, & Asuncion, 1992). 예를 들면 대학교 학점의 경우 한 학생은 'A' 학점을 받았고 다른 한 학생은 'B' 학점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사람들은 'B' 학점을 받은 학생보다는 'A' 학점을 받은 학생이 더 똑똑하거나 더 열심히 공부하였다고 추론할 것이다. 이 경우 'A' 학점을 받은 학생은 학점을 잘 주는 교수님에게 수업을 받았고 'B' 학점을 받은 학생은 학점을 잘 안주기로 유명한 교수님에게 수업을 받았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학점을 잘 받았다고 해서 그 학생이 더 똑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외적인 상황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 기초하여 학생들에 대한 추론을 한다. 지각자가 어떤 행위자에 대한 기질적 추론을 할 때 행위자의 결과가 외적인 상황에 의해 제약을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일치하게 행위자에 대해 기질적 추론을 할 때 그 추론은 결과편파적이 되었다고 말한다.

결과편파적 추론은 개인의 행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집단의 행동에 대한 추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Allison & Messick, 1985). 집단의 행동을 근거로 그 집단을 이해하는 과정은 개인의 행동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개인 행동을 지각하는 사람이 행동과 내적인 기질 사이에 일치성을 지각하는 기본적인 귀인 오류를 범하듯이 집단 행동을 지각하는 사람도 집단의 결정결과와 집단구성원의 기질적 특징 사이에 일치성을 지각하는 집단귀인오류(group attribution error)를 범한다.

Allison과 Messick(1985)은 집단귀인오류를 살펴보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가상적인 한 재신임선거의 결과가 기술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읽게 하고 선거투표자들의 태도를 추론하게 하였다. 피험자들의 반에게는 투표자들의 43%가 재신임을 지지하였다는 결과를 알려주었고, 다른 피험자 반에게는 투표자들의 57%가 재신임을 지지하였다는 정보를 주었다. 또한 피험자들에게는 재신임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결정규칙에 대해 알려 주었는데 결정규칙은 65%, 50%, 그리고 35%이었다(재신임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표자들의 비율). 따라서 투표자들의 57%가 재신임을 지지하였다는 정보를 읽은 피험자들은 결정규칙이 65%이면 재신임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규칙이 50%, 35%이면 재신임이 지지되었다는 결과를 갖게 된다. 결과를 살펴보면 투표자들의 재신임 투표율이 결정규칙을 초과하였다는 정보를 읽은 피험자들은 투표자들이 실제보다 재신임을 더 선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투표자들의 재신임 지지율이 43%라는 정보를 받은 피험자들도 재신임율이 결정규칙을 초과한 경우 투표자들이 재신임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투표의 결과가 투표자들의 태도를 추론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집단구성원들의 태도를 추론하는데 있어서 결과편파적 추론을 보이는 이유는 결과가 추론에서 휴리스틱한(heuristic)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개 집단은 집단구성원들의 대표적인 태도와 일치하게 결정을 하려고 한다. 따라서 결과는 집단구성원들의 대표적인 태도로 인식되며, 집단구성원들은 결과와 일치하는 기질을 갖고 있다고 추론하는 결과편파적 판단이 휴리스틱한 정보처리 과정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사람들이 집단에 대해 추론을 할 때 인지적 투자를 하여 좀더 주의깊게 생각하기 보다는 결과와 같이 눈에 쉽게 들어나는 정보에 기초하여 추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특히 결과는 추론을 할 때 예언적 가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결과편파적 추론은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추론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추론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주의깊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가 있으면 결과편파적 추론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Allison, Worth, & King, 1990; McHoskey & Miller, 1994).

Worth, Allison, 그리고 Messick(1987) 등은 결과가 추론에서 휴리스틱한 단서로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피험자들을 집단으로 구성하여 먼저 집단결정을 하게 한 다음 개인적으로 결정과제에 대한 집단의 태도를 추론하게 하였다. 피험자들의 반은 집단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게 하였는데, 집단구성원들이 흥미있어 할 것이라고 결정하면 자신을 포함한 집단구성원들이 그 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믿게 하였다. 다른 피험자들의 반은 집단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정을 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흥미있어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다른 사람들이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믿게 하였다. 결과를 보면 집단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정의 경우 피험자들은 집단구성원들에 대해 결과편파적 추론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이 집단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결과편파적 추론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결정과제가 집단구성원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과제의 적절성이 휴리스틱한 정보처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McHoskey와 Miller(1994)는 지각자들이 집단의 결정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작용한 외적인 제약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집단에 대한 결과편파적 추론은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결정결과를 만들어 낸 집단을 묘사하는 시나리오를 읽고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기질적 추론을 하게 하였다. 피험자들에게는 그 집단의 전형적인 구성원이 집단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지적하게 하였고 이를 집단의 의사결정에 작용한 지각된 제약의 정도로 간주하였다. 연구자들은 제약의 정도를 조작하였는데 어떤 집단은 집단구성원들의 92%가 동의한 투표로 결정을 한 것으로 묘사하였고, 어떤 집단은 선출된 위원회에 의해, 또 다른 어떤 집단은 임명된 집단지도자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되었다. 결과를 보면 제약의 정도가 클수록 즉 집단의 결정이 외부의 위원회나 집단지도자에 의해 결정된 경우 피험자들은 결과편파적 추론을 덜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험자들은 집단에 작용한 외적인 제약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 결과편파적 추론을 덜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보면 결과편파적 추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휴리스틱한 정보처리과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추론을 할 때 휴리스틱한 과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사람들 자신에게 중요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다(Kruglanski, 1988; Petty & Cacioppo, 1986). 사람들에게 자신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판단을 하게 하면 결과는 판단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학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B' 학점을 받은 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보다 'A' 학점을 받은 학생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머니는 판단과 관련된 다른 정보를 추구할 것이고 결과에 의존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판단을 요구하는 과제와의 개인적 관련성(personal relevance)은 결과가 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판단과제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각자로 하여금 더 주의깊은 정보처리를 요구한다. 판단이나 지각을 해야 할 자극정보가 자신과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정보는 자신과 무관한 정보보다는 더 특출하기 때문에 쉽게 주의를 끌며(Bargh, 1982; Geller & Shaver, 1976). 다른 정보보다 더욱 깊이 처

리된다(Kuiper & Rogers, 1979). 또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판단에는 동기가 개입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개입되거나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높은 자존감을 유지시키고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얻는 방향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더 주의깊게 처리한다(Bradley, 1978).

개인적 관련성과 관계있는 정보중 하나로 내외집단간 범주화에 따른 내집단 정보를 들 수 있다. Tajfel과 Turner(1979)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들의 집단멤버십을 자기개념의 한 측면으로 내면화한다. 내집단은 자신을 포함하며 내집단 구성원들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정보이다. 반대로 외집단에 대한 정보는 개인적 관련성이 낮은 정보이다. 따라서 내외집단간 범주화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는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보다 더 주의깊게 처리되며 처리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Mackie, Gastardo-Conaco, & Skelly, 1992).

내집단에 대한 판단이 개인적 관련성이 높다면 결과편파적 추론은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판단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Allison과 Messick(1985) 등은 내집단 구성원과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 비교를 통해 이를 살펴보았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각기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이 캠퍼스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투표한 결과를 알려주고 그들의 태도를 추론하게 하였다. 이때 한 대학교는 자신이 속한 대학교였고, 다른 한 대학교는 자신과 관련없는 대학교를 선정하여 피험자의 집단멤버십을 조작하였다. 피험자들이 두 대학교의 학생들에 대해 추론한 태도는 모두 결과편파적이었다. 즉 피험자들에게 보수적인 투표결과를 알려 주었을 때는 피험자들은 그 대학교의 학생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러나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과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을 비교해 보면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이 더 극단적이었다. 즉, 피험자들은 외집단 구성원들이 더 극단적인 보수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내외집단간 범주화에 따른 결과편파적

추론의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외집단 동질성 효과(외집단을 내집단보다 더 동질적인 것으로 보는 것: Linville & Jones, 1980; Park & Rothbart, 1982)로 해석할 수도 있다.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결과편파적 추론을 비교한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Allison & Messick, 1985), 먼저 피험자들에게 미국과 독일, 소련의 지도자들의 행동을 알려주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 추론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결과편파적 추론을 하여 각 나라의 국민들이 지도자의 행동과 일치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내집단(미국)과 외집단(소련)에 대한 추론을 비교해 보면 내집단에 대한 추론보다는 외집단에 대한 추론이 더 결과편파적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람들은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하여 모두 결과편파적인 추론을 하는데 외집단에 대한 결과편파적 추론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집단멤버십을 조작함으로써 내집단에 대한 추론과 외집단에 대한 추론에서 나타나는 결과편파적 추론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내집단에 대한 정보가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정보라면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은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과 비교할 때 결과편파적 추론이 더 적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는 주로 피험자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내외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추론을 하는 경우였다.

내외집단간 멤버십의 효과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두 가지 상황을 포함시켰다. 그 하나는 피험자들에게 내외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제시해 주고 판단 및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험자가 어떤 한 집단에 속하여 자신과 내외집단 관계에 있는 두 집단에 대해 판단 및 추론을 하는 것이다. 전자는 피험자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실험자가 설정한 인위의 자극집단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피험자의 내외집단 소속에 따른 집단소속감이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어떤 한 집단에 속한 경우 내외집단 구성원

들의 기질적 추론에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람들이 어떤 한 집단에 속하여 내외집단간 판단 및 추론을 하는 경우 결과편파적 추론 이외의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내외집단간 구성원들을 지각할 때 내집단의 성원들에 대해서는 자신과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집단의 성원들에 대해서는 자신과 유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Allen & Wilder, 1979). 또한 내외집단간 구분은 각 집단 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추론하는데 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어떤 한 집단에 속하였을 때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얻기 위해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대를 갖게 되고 외집단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 Howard와 Rothbart (1980)는 점 추정과제에 기초하여 내집단/외집단을 구분한 일련의 실험을 하였다. Howard 등은 점 추정과제에 기초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내집단 성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기대를, 외집단 성원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기대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차별적 기대가 피험자들이 두 집단의 성원에 대한 행동정보를 파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그들의 실험에서 피험자에게 내집단과 외집단 성원으로 묘사된 많은 행동기술문을 읽게 한 다음 회상해 보라고 했을 때 피험자들은 내집단 성원의 부정적인 행동보다는 외집단 성원의 부정적인 행동을 더 잘 기억하였다. 이러한 내집단 편애(ingroup favoritism)는 집단간 평가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자원을 집단간에 할당하게 하는 경우에 잘 나타난다.

연구 1

자기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적 정체감(personal identity)과 사회적 정체감(social identity)을 갖고 있다(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는 높은 자존감을 유지시키고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얻는 방향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성이 있다. 또한 사람들은 집단이 나뉘고 그 중 한 집단에 속하게 됐을 때 집단소속감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유지하려고 한다. 연구 1에서는 피험자가 어떤 한 집단에 속하여 과제를 수행하였을 때 개인의 정체감이 결과편파적 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이나 집단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가치있게 생각하고 잘할 수 없는 영역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입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이 실패한 과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람들이 집단으로 구분되고 어떤 한 집단에 속한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이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나 실패한 과제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심리적으로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개인이 실패한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과제에 성공하였을 때는 실패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 보다 과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방법

피험자

서울시내 Y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82명의 학생들이 피험자로 참가하였다. 이들 중 남자는 44명, 여자는 38명이었다. 피험자들은 4명에서 8명씩 집단으로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2(개인 과제수행결과; 성공/실패)×2(집단 과제수행결과; 성공/실패)의 요인설계의 각 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실험과제

1) **지각양식 검사** : 피험자들을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점추정과제를 이용하는 대신에 지각양식 검사를 실시하였다. 점추정과제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점추정과제를 이용한 예비실험에서 피험자들이 집단소속감을 거의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에 대한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 사물에 대한 지각양식에 따라 사람들은 부분에 민감한 사람과 전체에 민감한 사람

들을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세 가지 유형의 지각 양식 검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1부터 40까지의 숫자를 무선적으로 배열하고 1분내에 하나의 숫자도 빠짐 없이 번호 순서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선으로 잇게 하였고, 두 번째는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무선적으로 배열하고 알파벳 순서대로 25초내에 선으로 잇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51부터 90까지의 숫자를 무작위로 배열하고 1분 10초내에 처음과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선으로 잇게 하였다. 각 시행마다 제한 시간을 다르게 한 이유는 각 시행의 난이도가 달랐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각 시행마다 마지막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제한된 시간 안에 과제수행을 끝내게 되면 자신이 잘 했다고 스스로 검사결과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끝나면 실험실내의 칸막이가 설치된 곳으로 가서 채점을 하는 척 하면서 실험자가 임의로 피험자들을 부분조망자 또는 전체조망자로 분류한 다음 과제수행 결과 피드백 용지를 통해 개인적으로 피험자들에게 알려 주었다.

2) 사회적 민감성 검사 : 이는 지능검사의 하위검사에서 한인 그림맞추기 과제이다. 이 과제는 전체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피험자들은 여러 장으로 구성된 각기 다른 그림들을 보고 내용이 구성되도록 그림들을 배열하면 된다. 피험자들에게는 이 과제가 타인에 대한 이해력,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판단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라고 알려주었고 피험자들의 지각양식과 사회적 민감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 과제를 실시한다고 지시하였다. 이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개인의 성공/실패 및 집단의 성공/실패가 조작되었다. 이전에 지능검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피험자들은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절차

피험자들에게 본 실험의 목적은 일반 대학생들의 지각 양식과 사회적 민감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의 지각 양식에 따라 사회적 상호과정에서 사람들을 지각하는

능력도 차이가 있다는 지시 하에 본 연구는 단순히 물리적 자극에 대한 지각양식에 따라 사회적 자극에 대한 민감성에 차이가 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고 알려주었다. 먼저 피험자들에게 개인의 지각 양식을 알아보는 검사라고 소개하고, 세 가지 유형의 선 잇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과제가 끝나면 실험실내에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 지각양식 검사를 채점하는 척하고 실험자가 임의로 피험자들을 무선적으로 부분조망자와 전체조망자로 분류하였다. 채점하는 동안 피험자들에게는 앞으로 하게 될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전전해를 물어보았다. 개인의 지각양식 검사 결과는 개인적으로 피험자들에게 주어졌고 이 결과와 함께 기존의 연구 결과 지각양식에 따라 사물을 파악하는 경향성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서 전체조망자 또는 부분조망자들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려 주었다. 이는 피험자들이 속한 집단의 성공과 실패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에게 이후 본 실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보다 정확한 연구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한 다음 사회적 민감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가 끝나면 정답을 보면서 채점을 한 다음 피험자들의 실제점수와는 상관없이 실험자가 임의로 모든 피험자들에게 세 문항씩 틀린 것으로 채점한 다음 10점 만점에 7점을 받았다고 개인적으로 알려주었다. 피험자들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없었고 다른 피험자들의 결과도 볼 수 없게 하였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해 본 결과 평균 8.2 (실패조건) 또는 평균 5.6 (성공조건)이 나왔다는 설명과 함께 연구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어 피험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과제에서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자의 검사 결과를 파악한 후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 대한 견해를 다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작검증을 위한 몇가지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는데 이 문항에는 '지각양식 검사에 기초한 집단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서 자신이 한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을 포함시켰다. 이후 사후설명을 하고 실험을 끝마쳤다.

중속측정

사회적 민감성 검사를 실시하기 전과 실시하고 난 후 피험자들의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 대한 견해를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으로 측정하였다.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은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4개의 문항은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서 잘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나는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서 남들보다 잘 하는데 관심이 많다.', '내가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 관심이 없다.'였다. 피험자들에게는 10cm상의 선분위(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문항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장의 종이에 한 문항씩만 제시되었다. 사회적 민감성 검사 실시 이전에 측정한 '사용된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75이었으며 검사 실시 이후에 측정한 '사용된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의 신뢰도 계수는 0.80이었다.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을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지각양식검사를 실시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하여 왔던 점추정과제나 그림선호과제를 대신하여 지각양식검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험자들 자신이 실험자가 분류한 집단에 소속감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피험자들에게 자신이 부분조망자와 전체조망자 중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가를 측정하였다. 결과 7명의 피험자를 제외한 모든 피험자들이 실험자가 조작한 집단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집단구분에 대해 자신이 부분조망자 혹은 전체조망자에 속한다고 동의하는가를 물었는데 이 결과에서도 7명의 피험자들을 제외한 모든 피험자들이 실험조작과 일치하는 유형에 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지각양식검사를 사용한 집단구분의 조작검증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7명은 이후 결과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제수행의 성공과 실패는 사회적 민감성 검사이후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기존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조작되었다. 모든 피험자들이 동일한 점

수를 받았으나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평균이 8.2로 나왔다고 제시하는 조건의 피험자들은 과제수행에서 실패한 것이 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 평균이 5.6이 나왔다고 제시되는 조건의 피험자들은 과제에서 성공한 것이 된다. 사회적 민감성 검사의 수행정도에 대한 피드백 처리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험자들 자신이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서의 수행을 평가하게 하였다. 부분조망자와 전체조망자로의 집단구분과 과제수행정도의 피드백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변량분석한 결과 과제수행정도의 피드백의 주효과가 나타났다($F(1,73)=9.39, p<.001$). 즉 성공조건의 피험자들(52.36)이 실패조건의 피험자들(41.03) 보다 자신이 사회적 민감성 검사 과제를 더 잘 수행했다고 평정하였다. 부분조망자와 전체조망자로의 집단구분에 따른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성공/실패 조작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험자들 개인의 과제수행결과와 피험자들이 속한 집단의 과제수행결과에 따라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의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았다(표 1).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의 차이는 사회적 민감성 검사 이후에 측정한 것에서 검사 이전에 측정한 것을 뺀 점수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 혹은 실패를 경험한 후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의 정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과제수행 결과와 집단수행결과에 따라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의 차이를 변량분석해 본 결과, 개인적 과제수행 결과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72)=215.63, p<.05$). 즉

표 1. 개인적 과제수행 결과와 집단 수행결과에 따른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의 차이

		개인과제수행결과	
		성공	실패
집단과제	성공	4.71*(10.36)	-88(11.28)
수행결과	실패	1.40 (8.30)	-3.47(11.50)

* 사회적 민감성검사 이후 측정치에서 이전 측정치를 뺀 점수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과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개인적으로 과제에 성공한 피험자들은 실패한 피험자들 보다 과제 수행 이후에 그 과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심리적으로 더 몰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과제에서 성공한 피험자들은 과제수행 후에 과제의 중요성을 더 높게 평가한 반면 실패한 피험자들은 과제수행 후에 과제의 중요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피험자들이 속한 집단의 과제수행 결과에 따른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경향성은 나타났다($F(1,73)=68.73, p<.074$). 이는 피험자들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과제에서 성공한 집단일 때는 실패한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 보다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의 정도가 더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험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잘한 과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잘 못한 과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개인적 과제수행 결과와 집단수행 결과와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피험자들이 개인적으로 과제에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과제에서 성공한 경우 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결과는 이를 지지해 주지 못하였다.

연구 1에서는 특정한 과제에서의 개인의 성공/실패와 집단의 성공/실패에 따라 피험자들이 과제에 대한 중요성을 달리 판단하는 결과편파적 추론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이 과제수행에서 성공하였거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성공한 경우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험자들이 과제수행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요성을 달리 생각하는 결과편파적 추론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과제수행에서 성공하였고 자신이 속한 집단도 과제에서 성공한 경우 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적 몰입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과제를 실패하였고 자신이 속한 집단도 과제수행에서 실패한 경우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개인적으로 과제수행에서 성공하였으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실패한 경우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의 정도는 높았다. 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실패하였지만 개인적으로 과제에서 성공하였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과제에서 실패하였으나 자신이 속한 집단이 과제에서 성공한 경우 과제에 대한 심리적 몰입이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더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피험자들이 직접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조작하였으나 집단의 성공과 실패는 집단수준으로 직접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인용한 지시문에 의해 조작되었다. 따라서 집단의 성공과 실패가 피험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집단의 과제수행 결과가 개인의 결과편파적 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실험처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피험자들을 내외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과제수행의 결과에 따라 내외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 및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피험자들을 내외집단으로 구분하고 내외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결과편파적 추론을 살펴볼 때 사회적 범주화로 인한 내집단 편애 및 외집단 차별 현상도 고려해야 한다. 피험자들이 내외집단으로 구분된 경우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 및 평가에서는 과제수행에서의 성공/실패와 관계없이 결과편파적 추론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단지 피험자들이 내외집단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집단소속감에 따른 내집단 편애 효과만 나타날 것이다. 즉 내집단이 성공하였을 때,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과 평가에서는 내집단편애로 인한 추론 및 평가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고 내집단이 실패한 경우 결과편파적 추론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론 및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피험자들이 내외집단으로 구분되고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추론 및 평가를 하는 경우 결과편파적 추론의 효과와 집단소속감에 따른 외집단 차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외집단이 성공한 경우에 결과편파적 추론이 나타날 것이나 외집단에 대한 차별이 결과편파적 추론으로 인한 추론 및 평가

의 효과를 상쇄할 것이다. 따라서 외집단이 성공한 경우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 및 평가에서는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외집단이 실패한 경우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 및 평가에서는 결과편파적 추론과 외집단 차별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외집단이 실패하였을 때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 및 평가에서는 결과편파적 추론과 외집단 차별의 효과가 반영되어 더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방 법

피험자

서울시내 K대학과 Y대학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198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중 남자는 111명(K대: 36명; Y대: 75명)이었으며, 여자는 87명(K대: 43명; Y대: 44명)이었다. 피험자들은 각기 6명·8명씩 집단으로 실험에 참석하였다.

실험과제

1) **사회적 민감성 검사** : 피험자들을 내외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 민감성 검사라고 정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지능검사의 하위검사중 하나인 그림 맞추기 과제로서 연구 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하다. 피험자들이 실험실에 모이면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이 끝나면 정답을 불러주어 개 개인의 점수를 산출하게 하였다. 산출된 점수에 기초하여 실험자가 임의로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집단(그림맞추기 과제에서의 수행성적이 우수했던 사람들)과 낮은 집단(그림맞추기과제에서의 수행성적이 저조했던 사람들)으로 구분하였다.

2) **집단의사결정과제** : 이는 해양 조난과제로서 피험자들에게 15가지 품목을 제시해 주고 자신들이 배를 타고 가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구명정을 타기 전에 자신들이 꼭 가지고 가야 할 물건으로 15가지 품목들을 그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정하게 하는 것이다. 집단성원들이 서로 협동하여 과제를 수행

하게 한 다음 정답(해양전문가들이 제시한 답안)을 알려주고 집단성적을 채점하게 하였다. 채점한 결과에 따라 피험자들이 자신의 집단성적이 상대집단보다 우수한지 혹은 나쁜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종속측정

피험자들에게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지적인 정도', '능력', 그리고 '호감도' 등을 14cm의 선분상에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능력'차원의 경우 한쪽 끝은 '매우 낮다'를 다른 쪽 끝에는 '매우 높다'를 주고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 및 평가를 나타내게 하였다. 피험자들이 응답한 결과는 자로 측정하여 mm 단위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귀인을 측정하였는데 귀인은 Weiner가 설정한 귀인의 차원인 '능력', '노력', '과제의 난이도', 그리고 '운'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와 '매우 그렇다'를 양끝으로 하여 5점 척도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험절차

실험은 한번에 6-8명이 참가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에게 본 실험의 목적이 사회적 민감성과 집단과제 수행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소개하고, 먼저 개 개인의 사회적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피험자들이 개별적으로 사회적 민감성 검사과제를 수행하고 나면 정답을 가르쳐 주고 스스로 채점을 하게 하였다. 채점이 끝나면 자신의 점수를 밝히도록 하였다. 이때 실험자는 피험자들의 점수 분포를 통해 두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 임의의 점수를 정하고, 그 점수보다 높은 사람들은 대학생들의 평균보다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것이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열등한 점수를 획득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나서 우수한 피험자들과 열등한 피험자들로 각각 집단을 구성하게 하고 각자에게 A부터 D사이의 알파벳과 W부터 Z사이의 알파벳을 부여하여 자신의 부호로 하게 하였다.

집단을 구성하고 나면 내외집단 성원에 대한 지적인 정도, 능력, 호감도 등을 추론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나서 집단과제를 실시하였다. 집단과제는 먼저 해양

조난 과제를 개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개개인의 결정을 가지고 각 집단이 토의를 통해 집단적으로 우선 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집단의사결정이 끝나고 나면 가져가야 할 품목의 우선 순위를 가르쳐 주고 집단별로 피험자들이 매긴 순위와 정답과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계산하여 전체를 더하게 하였다. 즉, 집단의 결정이 정답과 유사할수록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므로 그 합이 적을수록 좋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집단의 점수를 서로 비교하도록 하고 더 낮은 점수를 획득한 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집단보다 과제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집단점수가 산출되면 실험자가 집단점수를 파악한 다음 두 집단 점수의 중간 점수를 임의로 정하여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평균이 그 임의의 중간점수 정도 된다고 말해주었다. 따라서 두 집단중 임의의 점수보다 점수가 낮은 집단은 과제수행이 우수한 집단(성공집단)이고 임의의 점수보다 높은 점수가 나온 집단은 과제수행이 저조한 집단(실패집단)이 되게 하였다. 집단과제가 끝나고 나면 사회적 민감성 검사이후에 실시했던 것처럼 내집단 구성원과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지적인 정도, 능력, 호감도, 과제수행의 분위기, 그리고 귀인 등을 추론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종속측정이 끝나면, 조작 검증용을 하고 사후설명을 한 후 실험을 끝냈다.

결 과

1. 내외집단에 대한 선호도의 평가

피험자들을 내외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사회적 민감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과제 수행에 기초하여 실험자가 임의의 기준으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피험자들을 구분하였다. 피험자들을 무선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이유는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서의 결과가 개인적으로 과제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피험자들을 집단으로 구분한 다음 그들에게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한 내집단 구성원과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그들의 지적인 정도, 능력, 선호도 등을 추정하게 하였다. 먼저 사회적 민감성 검사의 결과에 기초한 내외집단 구분

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차 종속측정(사회적 민감성 검사후 피험자들을 내외집단으로 구분한 후 측정)에서 측정된 내외집단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2의 ()안의 수치).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평가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 따라 변량분석을 해본 결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외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났다($F(1, 192)=6.07, p<.001$).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서 상위집단에 속한 피험자들과 하위집단에 속한 피험자들 모두 자신들의 내집단 구성원들을 외집단 구성원들 보다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집단 선호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 기초한 내외집단간 구분이 의미있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차 종속측정(집단의사결정 과제후 측정)시에 측정된 내외집단에 대한 선호도는 집단과제 수행의 결과에 따라 각 집단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사회적 민감성 검사와 해양과제 결과에 따라 내외집단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지는 지는 내외집단 구성원별로 변량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집단과제결과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났다($F(1,192)=5.92, p<.01$), 사회적 민감성검사에 따른 집단구분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1,192)=0.759, ns$).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 기초하여 상위집단에 속한 피험자들과 하위집단에 속한 피험자들 모두 집단과제 수행에서 실패하였을 때 보다 성공하였을 때 내집단 구성원들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집단과제수행에서의 결과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F(1,192)=0.57, ns$),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에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192)=0.33, ns$).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외집단이 실패하였을 때는 성공하였을 때 보다 선호도가 더 낮을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차이가 없었다.

집단의사결정과제인 해양과제에서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른 결과편파적 추론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1차 시기의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와 2

표 2. 집단과제수행 결과에 따른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

집단소속	집단과제결과		성 공		실 패	
	내집단	외집단	내집단	외집단		
상위집단	98.98 (86.26)*	78.46 (77.43)	87.43 (86.26)	76.66 (77.43)		
하위집단	93.17 (86.25)	76.85 (80.56)	88.63 (86.25)	75.28 (80.56)		

()*는 1차시기에 측정한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

차 시기의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를 비교하여 보았다. 상위집단으로 성공한 집단, 상위집단으로 실패한 집단, 하위집단으로 성공한 집단, 그리고 하위집단으로 실패한 집단에서 각기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2).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과제에서 성공하였을 때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는 상위집단(86.26 대 98.98, $t(56)=-5.87, p<.001$)과 하위집단(86.25 대 93.17, $t(44)=-4.02, p<.001$)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 집단과제에서 실패하였을 때는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가 상위집단(86.26 대 87.43, $t(47)=-1.03, ns$)과 하위집단(86.25 대 88.63, $t(50)=-1.78, ns$)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는 모든 조건에서 1차시기와 2차시기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지적인 정도와 능력에 대한 추론

피험자들을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 따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눈 후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지적인 정도와 능력에 대한 1차 시기 종속측정을 실시

하였다. 이는 실제로는 무선적으로 집단을 할당했으나 개인적인 수행의 결과에 따라 집단을 나눈 것으로 지각한 피험자들이 내외집단 성원들에 대한 지적인 정도와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후 집단의사결정과제인 해양조난 과제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고 난 뒤 측정한 2차 종속 측정에서 내외집단 성원들에 대한 추론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비교해 보기 위한 것이었다.

1차 시기에 측정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별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지적인 정도와 능력에 대한 추론 결과를 살펴보면(표 3의 ()안의 수치), 지적정도에 대한 추론에서 내외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F(1,192)=0.23, ns$),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의 구분에 따른 주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F(1,192)=0.17, ns$). 그러나 상위집단의 경우 피험자들은 내집단 구성원들을 외집단 구성원들 보다 지적정도가 우수하다고 추론하였다($t(94)=4.11, p<.001$). 능력에 대한 추론에서도 내외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F(1,192)=0.21, ns$),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의 구분에 따른 주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F(1,192)=0.14, ns$). 그러나 상위집단의 경우 피험자들은 내집단 구성원들이 외집단 구성원들 보다 능력이 우수하다고 추론하

표 3. 집단과제 결과에 따른 내외집단 구성원별 지적 정도와 능력에 대한 추론의 평균

집단소속	집단과제결과		성공		실패	
	내집단	외집단	내집단	외집단		
지적 정도	상위집단	106.56(90.67)	83.85(81.51)	82.17(90.67)	75.62(81.51)	
	하위집단	88.84(86.74)	80.07(90.50)	78.74(86.74)	81.58(90.50)	
능력	상위집단	91.22(92.78)	81.52(83.11)	83.85(92.78)	79.11(83.11)	
	하위집단	87.30(91.43)	79.53(90.01)	80.00(91.43)	83.46(90.01)	

()는 1차시기에 측정한 내외집단 구성원별 지적정도와 능력에 대한 추론

였다($t(96)=5.18, p<.001$). 지적정도와 능력에 대한 추론 모두에서 상위집단의 경우에만 내집단 구성원들을 외집단 구성원들 보다 우수하다고 추론하였으며 하위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으로 과제수행을 한 결과,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한 후에 내외집단에 대한 지적인 정도와 능력에 대한 추론이 어떻게 변하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집단 성원에 대한 1차, 2차 종속측정과 외집단 성원에 대한 1차, 2차 종속측정을 피험자내 요인으로 설정하고 집단과제의 성공과 실패를 피험자간 요인으로 설정하여 GLM(general linear model) 반복측정 방식을 사용한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내외집단 구성원들의 지적인 정도에 대한 추론을 변량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과제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188)=2.34, ns$). 반면에 내집단 구성원들의 지적인 정도에 대한 추론에서는 측정시기간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피험자들은 1차 측정때 보다 2차 측정때 내집단 구성원들을 유의하게 더 우수한 것으로 추론하였다($F(1,188)=13.93, p<.001$). 이러한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은 집단과제에서의 결과와 상호작용을 하여 집단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집단과제에서 성공하였을 때는 1차측정때 보다 2차 측정때에 내집단 구성원들의 지적인 정도가 더 우수하다고 추론하였고, 집단과제에서 실패하였을 때는 측정시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지적인 정도에 대한 추론은 집단과제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1,188)=1.91, ns$). 그러나 측정시기별 외집단 구성원들의 지적인 정도에 대한 추론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188)=5.33, p<.05$). 피험자들은 1차시기 보다 2차시기에 외집단 구성원들의 지적인 정도를 더 낮게 추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관과적 추론에 따르면 피험자들이 집단과제에서 실패하였을 경우 외집단 구성원들의 지적인 정도에 대한 추론은 더 높아져야 하나 더 낮게 추론한 것으로 나왔다.

내외집단 구성원들의 능력에 대한 추론을 변량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과제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다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1,192)=1.57, ns$). 측정시기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능력에 대한 추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192)=6.17, p<.05$), 피험자들은 1차시기에 비해 2차시기에 구성원들의 능력을 더 낮게 추론하였다. 특히 하위집단의 경우 내외집단 구성원들의 능력을 모두 낮게 추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집단 구성원들의 능력에 대한 추론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192)=6.99, p<.05$), 피험자들은 외집단 구성원들의 능력을 더 낮게 추론하였다. 특히 집단과제에서 성공한 경우에 외집단 구성원들의 능력을 낮게 추론하였고, 집단과제에서 실패하였을 때는 외집단 구성원들의 능력에 대한 추론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과제에서의 성공/실패에 따라 피험자들이 그들의 결과를 어떻게 귀인시키는 가를 살펴보았다(표 4). 집단과제에서 성공한 집단의 피험자들과 실패한 피험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능력 및 노력의 귀인을 달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한 집단의 피험자들이 실패한 집단의 피험자들보다 그들의 결과를 더 자신이 속한 집단 성원들의 능력($t(192)=5.33, p<.001$)과 노력($t(192)=5.31, p<.001$)에 귀인하였다. 또한 상대방 집단의 구성원들의 노력에 대한 귀인에서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실패한 집단의 피험자들이 성공한 집단의 피험자들보다 집단과제의 결과를 상대 집단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더 많이 귀인하였다($t(192)=-2.02, p<.05$). 이외 상대 집단의 능력이나 과제의 난이도, 운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대한 귀인에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피험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 성공하였을 때

표 4. 집단과제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피험자들의 귀인성향

집단별 귀인유형 \ 집단과제결과	성공	실패
내집단의 능력	3.69(.66)	3.07(.97)
내집단의 노력	3.79(.70)	3.15(.95)
외집단의 능력	2.01(.86)	2.04(.98)
외집단의 노력	1.83(.90)	2.13(1.20)

()은 표준편차임.

그 성공을 내집단 구성원들이 능력이 있거나 노력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하나, 실패했을 때는 외집단 구성원들이 노력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추론과정에 있어서 행위자의 결과가 외적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각자가 행위자에게 결과와 일치하는 기질을 귀인시킬 때 이를 결과편파적 추론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편파적 추론이 사람들의 내외집단 소속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편파적 추론이 부분적으로 휴리스틱한 과정이고 결과가 예언적인 가치때문이라면 정보를 좀더 주의깊게 처리하도록 하는 동기적 요인이나 인지적 요인은 결과편파적 추론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때는 그 정보가 개인적 관련성이 높을 때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개입되거나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높은 자존감을 유지시키고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얻는 방향으로 지각하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더 주의깊게 처리한다. 정보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이 결과편파적 추론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외집단에 대한 정보 중 내집단에 대한 정보는 외집단에 대한 정보보다 결과편파적 추론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집단간 범주화에 관한 연구들과는 달리 피험자가 어느 한 집단에 소속하고 집단 소속감에 따라 내외집단을 구분한 다음 과제수행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결과편파적 추론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피험자들이 개인별로 사회적 민감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추론한 결과를 살펴보면 내집단 구성원들의 지적인 정도와 능력에 대한 추론은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서 상위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에게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하위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에게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 기초하여 피험자들을 상

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한 것은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를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성공한 피험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외집단 구성원들 보다 지적인 정도와 능력이 우수하다고 추론하였고, 실패하였을 때는 내외집단 구성원들을 달리 추론하지 않았다. 기존의 결과편파적 추론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험자들은 수행결과에 기초하여 내집단 구성원들과 외집단 구성원들에 기질적 추론을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결과편파적 추론은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서 수행이 우수한 집단 즉 개인적으로 수행에서 성공한 피험자들에게서만 일어났다.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 따른 구분과 상관없이 피험자들은 외집단 구성원들 보다 내집단 구성원들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집단 편애 현상이 개인의 과제수행결과를 의미하는 사회적 민감성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피험자들 두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민감성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 피험자들에게 집단으로 해양과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해양과제는 전문가들의 정답이 있는 것으로서 이 과제에서의 결과는 피험자들에게 자신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수행이 더 우수하였는지 혹은 못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집단과제에서 성공한 피험자들과 실패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기질적 추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단과제에서 성공한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내집단의 구성원들이 외집단 구성원들 보다 지적인 정도가 높고 능력도 우수하다고 추론하였다. 그러나 집단과제에서 실패한 피험자들이 한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그들은 내집단 구성원들과 외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능력이 다르지 않으며 지적인 정도도 차이가 없다고 추론하였다. 이는 사회적 민감성 검사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결과편파적 추론은 사람들의 추론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긴 하나 사람들이 추론 및 판단의 대상이 되는 어느 한 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을 방어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한 결과,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제수행에서 실패한 것으로 분류된 피험자들은 그 결과가 자신의 자아고양 동기와 불일치하는 것이고 그러한 불일치한 결과가 피험자들로 하여금 더 주의깊은 정보처리를 요구하였을 수 있다.

기존의 결과편파적 추론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내집단에 대한 정보는 개인적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편파적 추론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피험자가 직접 개입되지 않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피험자가 자극집단중 어느 한 집단에 속한 경우 자신이 속한 집단을 우호적으로 지각하고 자아를 향상시키려는 동기적 요인이 개입되므로 피험자가 실패집단에 속하였을 때 결과편파적 추론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험자가 실패집단에 속한 경우에는 외집단인 성공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해 그들이 지적으로 우수하고 능력도 우수하다고 추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추론은 자아방어적 추론과 상반되는 것이고 피험자들은 그러한 결과편파적 추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내집단이 단순히 개인적 관련성이 높다고 해서 결과편파적인 추론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집단고양 편파와 같은 다른 동기적 요인이 결과편파적 추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정보를 더 주의깊게 처리하도록 만드는 동기적 요인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러한 동기적 요인이 결과편파적 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과편파적 추론에 따르면 외집단이 실패하였을 때 피험자들의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추론 및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집단이 실패해도 외집단 구성원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추론하는 결과편파적 추론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편파적 추론은 사회적 지각자들이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리스틱한 정보처리기제이다. 어떤 집단이 동질적인 것으로 지각될수록 지각자들은 그 집단구성원들에 대

해 더 극단적인 판단을 하며(Linville & Jones, 1980; Park & Rothbart, 1982), 지각자들이 외집단을 동질적으로 지각하고 그들에 대해 추론을 하는 경우에는 결과편파적 추론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피험자들은 전형적인 집단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같은 대학교에 속해 있으면서 실험실내에서 무선적으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외집단 구성원들이 자신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지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외집단이 자신들과 이해관계나 적대관계에 있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의 초점이 자신이나 내집단으로만 향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수행의 결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피험자들의 반응에 기초하여 개인 및 집단의 성공과 실패를 조작하였다. 연구 1과는 달리 연구 2에서는 피험자들이 무선적으로 실험조건에 배정되지 못하였다. 조작검증을 통해 실험처치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하더라도 피험자들이 무선적으로 실험조건에 배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떤 알지 못하는 피험자들의 특성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집단의 과제수행결과에 따라 성공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패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그러한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만약 외집단 구성원이 똑같은 수행을 하고도 결정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다른 결과를 경험하였다면 사람들은 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결과편파적 추론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내집단이 다른 결정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해 결과편파적 추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작한 성공/실패가 피험자들에게 어떻게 지각되었는지 예컨대 기대와 일치 혹은 불일치한 것으로 지각되었는지 아니면 차별경험과 같은 부당한 감정을 느꼈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이후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결과를 어떻게 지각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겠다.

참 고 문 헌

- Allen, V. L., & Wilder, D. A. (1979). Group categorization and attribution of belief similarity. *Small Group Behavior, 10*, 73-80.
- Allison, S. T., & Messick, D. M. (1985). The group attribution err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1*, 563-579.
- Allison, S. T., Worth, L. T., & King, M. W. C. (1990). Group decisions as social inference heu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01-811.
- Bargh, J. A. (1982). Attention and automaticity in the processing of self-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425-436.
- Bem, D. J. (1972). Self-perception theor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6)*. New York: Academic Press.
- Bradley, G. W. (1978).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process: A reexamination of the fact or fiction ques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46-71.
- Brehm, J. M. (1956). Post-decision changes in desirability of alternativ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 384-389.
- Festinger, L., & Carlsmith, J. M. (1959). Cognitive consequences of forced complia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8*, 203-210.
- Fiske, S. T. (1992). Thinking is for doing: Portraits of social cognition from daguerreotype to laserphot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877-889.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New York: McGraw-Hill.
- Geller, V., & Shaver, P. (1976). Cognitive consequences of self-awarenes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2*, 99-108.
- Gerard, H. B., & White, G. L. (1983). Post-decisional reevaluation of choice alterna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64-369.
- Heider, F. (1944). Social perception and phenomenal causality. *Psychological Review, 51*, 358-374.
- Howard, J. W., & Rothbart, M. (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memory for in-group and out-group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301-310.
- Jones, E. E., & Davis, K. E. (1965). From acts to dispositions: The attribution process in person percept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pp. 219-266)*. New York: Academic Press.
- Jones, E. E., & Harris, V. A. (1967).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 1-24.
- Kruglanski, A. (1988). *Lay epistemic and human knowledge*. New York: Plenum.
- Kuiper, N. A., & Rogers, T. B. (1979). Encoding of personal information: Self-other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499-514.
- Linville, P. W., & Jones, E. E. (1980). Polarized appraisals of out-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89-703.
- Mackie, D. M., Allison, S. T., Worth, L. T., & Asuncion, A. G. (1992). The generalization of outcome-biased counter-stereotypic infer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8*, 43-64.
- Mackie, D. M., Allison, S. T., Worth, L. T., & Asuncion, A. G. (1992). The impact of outcome biases on counterstereotypic inference about 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44-51.
- Mackie, D. M., Gastardo-Conaco, M. C., & Skelly, J. J. (1992). Knowledge of the advocated position and the processing of in-group and out-group persua-

- sive messa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145-151.
- Mackie, D. M., Worth, L. T., & Allison, S. T. (1990). Outcome biased inferences and the perception of change in groups. *Social Cognition*, 8, 325-342.
- McHoskey, J. W., & Miller, A. G. (1994). Effects of constraint identification, processing mode, expectancies, and intragroup variability on attributions toward group memb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266-276.
- Park, B., & Rothbart, M. (1982). Perception of out-group homogeneity and levels of social categorization: Memory for the subordinate attribute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051-1068.
- Petty, R. E., & Cacioppo, J. T. (1986).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of persuasion.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9, pp. 123-205). New York: Academic Press.
- Ross, L., Green, D., & House, P. (1977). The false consensus phenomenon: An attributional bias in self-perception and social perception proces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279-301.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 34-47). Monterey, CA: Brooks/Cole.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 Wetherell, M. 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 England: Basil Blackwell.

The Impact of Success and Failure in the Task Performance on Outcome-Biased Inferences

Kwan-Jae Song and Su-Ae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ask success and failure on outcome-biased inferences. In the first phase of the present study, the group membership was manipulated by performing picture arrangement test.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high group and low group. The members of two groups answered three items intended to assess the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preference, intelligence, and competence. In the second phase of the study, the members of high group and low group were required to perform group decision making task. After completing group decision making task, the outcome of each group was manipulated so one group succeed and another group failed. The subjects answered the same questions with previous items. In the success condition, analysis of subjects' inferences revealed effects of outcome-biases. The subjects judged ingroup members to be more intelligent and competent when they succeed the task. The inferences made after the second phase were more positive than those made after the first phase. But in the fail condition, subjects did not make outcome biased inferences, perceiving both ingroup members and outgroup members as of about equal intelligence and competence. In this study, we were able to demonstrate the motivational effects on outcome biased inferences.